

## 포더와 좁은 내용 (Narrow Content)

석봉래

### 목 차

- I. 통속 심리학, 인지론 그리고 자연주의 심리학
  - A. 통속 심리학과 인지론
  - B. 인지론과 자연주의 심리학
- II. 좁은 내용과 넓은 내용
  - A. 좁은 내용과 행위를 야기하는 능력
  - B. 넓은 내용과 믿음의 고정
  - C. 심리상태에 대한 외연적 해석과 행위 인과적 해석
- III. 심리상태에 대한 인지론적 분류의 문제점

통속 심리학에 의하면 우리의 심리 상태들의 특징은 일정한 내용을 갖는다는 점이다. 우리의 믿음과 희망과 의심은 항상 '어떤 것'에 대한 믿음과 희망과 의심이며 그 어떤 것은 명제적 내용인 경우가 많다. 본 보고서에서 필자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바로 이러한 내용에 관한 것이다. 이런 명제적 내용들을 어떤 방식으로 규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구별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본 보고서에서 다루어 질 문제이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다. 그 하나는 그 (심리상태의) 내용을 유기체와 환경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규정하자는 자연주의 심리학 (Naturalistic Psychology)의 입장이며, 다른 하나는 그 내용을 외적인 행위의 바탕이 되는 내적인 (인과적) 과정에 의해 규정해 보자는 인지 과학의 입장이다. 전자의 입장을 심리 상태에 대한 넓은 내용 (Broad Content)을 주장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후자의 입장은 좁은 내용 (Narrow Content)을 주장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 필자는 후자의 입장을 취하는 Fodor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넓은 내용과 좁은 내용을 주장하는 입장을 검토해 보고, 특별히 좁은 내용을 주장하는 입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첫째 부분에서 필자는 통속 심리학과 그것을 컴퓨터적인 모델을 통해 현대적으로 재건해 보려는 인지론 (Cognitivism)의 주장을 살펴 보고, 이런 입장과 대비되는 자연주의 심리학의 주장을 살펴 볼 것이다. 둘째 부분에서 필자는 심리상태의 대한 두 입장 (좁은 내용을 주장하는 입장과 넓은 내용을 주장하는 입

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다. 세 번째 부분에서 필자는 좁은 내용을 주장하는 Fodor의 주장의 배경과 그 문제점을 살펴 볼 것이다.

## I. 통속심리학, 인지론 그리고 자연주의 심리학

### A. 통속 심리학과 인지론

우리는 일상적으로 '--- 생각한다', '--- 믿는다', 또는 '---바란다'와 같은 우리의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쓰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말로써 타인을 이해하고 자신을 표현하며 일상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간다. 우리와 비슷한 존재에 대해서 이런 통속 심리학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 처럼 보인다. 타인의 행위를 적절히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있어 통속 심리학처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수단은 없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통속 심리학이란 인간의 행동을 그 행위자에게 믿음이나 바람을 부여함으로써 설명하는 이론이다. 통속 심리학적 설명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전제되어 있다. 첫째로 그 나타남과 상호 작용이 우리의 행위를 야기하게 하는 심리상태가 있다. 둘째로 그런 심리상태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우리 행위의 규칙성을 파악할 수 있다.<sup>1)</sup> 이러한 통속 심리학적 설명방식의 특징은 행위자의 믿음이나 바람을 통해 그의 행위를 설명한다는 데 있다. 이 경우 행위가 일어난 원인은 바로 그 행위자의 특정한 믿음이나 바람이 된다.

인지론은 기본적으로 행위 설명에 있어 통속 심리학적 설명 방식을 받아들이는 입장이라 볼 수 있다. 인지론이나 통속 심리학이나 모두 행위의 규칙성과 그것에 관한 일반화를 얻기 위해서 내적인 믿음이나 바람의 내용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sup>2)</sup>

통속 심리학은 인지론이 받아들이고 있는 마음에 대한 표상이론(Representational theory of Mind 이하 RTM 이라 부르기로 함)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상식적으로 욕구나 믿음은 (그것의 대상으로서) 어떠한 명제적 내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취급되는데 RTM에서 이 내용은 바로 심적 표상(Mental Representation)인 것이다. RTM에서는 믿음이나 욕구같은 통속 심리적인 명제 태도들을 심적표상에 대한 관계로 해석한다. 즉 우리의 믿음 상태나 욕구 상태는 우리가 어떤 일정한 심적 표상에 대해 일정한 관계를 갖는 상태이다. 예를 들어 내가 「설악산은 아름답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이러한 나의 믿음 상태는 설악산이 아름답다고 하는 내용 즉 설악산이 아름답다는 심적 표상에 대해 내가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그런데 현대의 인지론자들은 통속 심리학적 명제 태도 그리고 심적 표상으로 이해되는 그러한 태도들의 내용을 보다 경험적으로 엄밀하게 다듬으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즉 인지론은 통속 심리학의 행위에 대한 경험적인 일반화가 체계적으로 달성될 수 있고 엄밀

1) 통속 심리학에 관해서는 Fodor(1985) pp.77-81, 그리고 Fodor(1988) pp.1-26을 참조할 것.

2) Fodor (1985) 을 참고할 것.

해 질 수 있다는 희망에서 출발되었다.<sup>3)</sup> 이것은 통속 심리학의 모든 주장을 다 받아 들일 수 있다는 입장은 아니다. 인지론이 택하고 있는 전략이란 경험과학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마음에 관한 이론을 통속 심리학적인 틀을 기초로 하여 만들 수 있다는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통속 심리학적인 설명을 경험적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데는 컴퓨터 과학이 한 몫을 한다. 우리의 욕구나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행위를 야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인지론은 통속 심리학처럼 접근하기 어려운 「마음」이라는 존재를 내세우는 대신에 경험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컴퓨터의 작동을 지적한다.

여러가지 행위 설명에 있어 내적인 주체의 상태를 거론한다는 기본적인 점에서 현대의 인지론과 통속 심리학은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심리과정을 컴퓨터적인 과정으로 이해하려 한다는 점에서는 두 입장의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통속 이론을 단순히 마음에 대한 표상 이론이라 한다면 인지론은 마음에 대한 컴퓨터적 이론 (Computational Theory of Mind, 이하 CTM 이라 부르기로 함) 이라 할 수 있다.

## B. 인지론과 자연주의 심리학

앞서 우리는 인지론적 입장을 살펴 보았다. 이러한 인지론적인 입장과는 달리 심리상태와 과정에 대한 설명을 유기체(주체)와 환경 간의 관계에 의거하여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도 있다. 흔히 이러한 입장을 자연주의 심리학(Naturalistic Psychology)의 입장이라고 부른다. 이런 입장의 핵심적인 주장은 심리학은 생물학의 한 분과 학문이라는 것이다. 유기체의 행동과 그것의 내적인 상태와 과정은 항상 환경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며, 따라서 그런 현상은 유기체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고 자연주의 심리학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생각한다.<sup>4)</sup>

그러나, 이런 입장은 인지론적인 입장과는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인다. 인지론적인 입장에 따르면 심리상태는 그것이 놓여 있는 환경적인 요인과는 무관하게 분류되고 그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지론을 옹호하고 있는 Fodor 환경적인 요인의 고려라는 다소 그럴듯한 주장은 인간의 행위 설명이라는 심리학적 목표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 Fodor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sup>5)</sup>

첫째로 명제 태도로 표현된 우리의 심리상태들은 불가투시적 맥락(Opaque Context)을 형성한다. 이 점은 우리의 심리 상태들은 그것이 속하고 있는 체계 자신에 의해 표상된 바로서 구분되고 개별화되지, 외적 환경에 의해 구분되고 개별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자연주의 심리학에 의하면 우리의 심리 상태나 과정은 외적인 환경과의 관계에 의하여 구분되므로 정신 현상의 이러한 측면을 만족스럽게 설명하지 못한다.

둘째로 자연주의 심리학은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내적인 심리상태에 의해 야기되었다

3) Stich (1983) p. 129

4) Fodor (1980) p.231

“여기서 늘 반복되는 주제는 심리학은 생물학의 한 분과라는 것 즉 유기체를 물리적인 환경에 놓여 있는 존재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5) 이하는 Fodor(1980)에 나타난 그의 주장을 정리한 것임.

는 점을 설명하는 데 곤란을 느낄 것이다. 즉 우리의 행위가 내적인 심리상태에 의해 야기 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리상태들은 인과적 능력을 갖는 단위로서 개별화되어야 한다. 이 점은 인지론에 의해서는 만족스럽게 설명되지만 자연주의 심리학에 의해서는 만족스럽게 설명되지 않는다. (자연주의 심리학에 의하면 심리상태는 투명하게 즉 각각의 심리상태의 내용인 명제들이 진리함수적인 성격을 준수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런 해석을 따르면 심리상태는 외적인 행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 컬럼부스는 유럽 대륙의 서쪽에 인도가 있다고 믿었다. 그의 그런 믿음이 그가 서쪽으로 항해하도록 만든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의 믿음을 자연주의적으로 투명하게 해석한다면 우리는 그의 행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세째로 어떤 명제적 내용을 믿고 있다는 것과 그 명제적 내용이 참임을 믿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상태의 측면에서는 구분할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심리상태와 과정에 대해서 의미 또는 진리 개념을 거론 하는 것은 무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의 심리상태들을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그러한 의미와 진리의 측면에서 검토하는 자연주의 심리학의 입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Fodor는 주장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예를 살펴 보자.

(7) P 일 경우 오직 그러한 경우에만 a 를 하라.

(L) P 라고 내가 믿는다면 오직 그런 경우에만 a 를 하라.

이 두 조건의 준수 규칙은 매우 다르다. 예를 들어 내가 P 를 믿고 있지만 사실은 P가 거짓일 수가 있다. 그런 경우 (7)과 (L)은 전적으로 다른 명령이 된다. 그러나 어떤 체계의 내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자. 과연 그 경우에도 (7) 과 (L)은 다른 명령인가? 다음과 같은 이상스런 명령을 보면 그 답을 분명히 알 수 있다.

(C) 내가 P 라고 믿든 말든 간에 P 이면 오직 그런 경우에만 a 를 하라.

우리는 (C)을 준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다. 명령 (C)의 대강의 의미를 아는 것도 명령 준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려 할 수 있는 것은 Fodor의 지적처럼 자연주의 심리학의 실천 가능성의 문제이다. 환경과 유기체와의 관계를 법칙 예화적인 것으로 기술하는 것은 자연주의 심리학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 그러나, 그러한 기술은 자연과학이 완벽하게 완결되고 나서야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즉 환경과 유기체의 내적인 상태 사이의 법칙적인 관계는 신만이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Fodor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심리학은 불가피하게 유아론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인가? CTM 과 RTM의 입장은 일종의 괄호침이다.<sup>6)</sup> 즉 이 입장은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무력화 시키고 의식 내의 순수 현전으로 되돌아 가는 현상학적 정신과 흡사하게 보인다. 물론 현상학적 입장에서는 정신 현상의 고유함을 확보하는 방법으로서의 괄호침이 오히려 적극적인 의미를 갖게 되겠지만 인지론적인 입장에서는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는 최

6) Dennett (1987) p.153

“방법론적인 유아론은 일견 후설의 판단 중지 또는 괄호침의 일종이다.”

선의 심리학 이론이 불가피하게 갖게 되는 방법론 상의 한 특징일 뿐이다. Fodor는 인지론이 우리의 심리상태가 의미론적인 속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다만 그런 속성들은 우리의 행위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심리학에 있어서는 별로 소용이 없는 불필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그런 속성과의 관계도 언젠가는 조사되어야 하겠지만 당장 우리의 행위를 설명하고 예측할 때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믿음만한 방법은 바로 유아론적 입장이라는 것이다. Fodor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 입장은 .....유아론이 옳바르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단지 나는 진리, 지시 그리고 나머지 의미론적인 개념들은 심리학적인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sup>7)</sup>

## II. 좁은 내용(Narrow Content)과 넓은 내용(Broad Content)

### A. 좁은 내용과 행위를 야기하는 능력

우리의 심리상태가 일정한 내용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외적인 행위는 내적인 심리상태에 의해 야기된다는 점은 통속심리학과 인지론을 연결시키는 핵심적 생각이다. 그렇다면, 심리상태들에 어떤 내용이 부여되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것들은 외적인 행위를 야기하는가? 이에 대한 Fodor의 대답은 간단하다. 심리상태들의 내용은 좁게 부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바로 그렇게 좁게 부여된 내용이 우리의 행위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도대체 좁은 내용이란 무엇인가?

우선, 내용이란 것이 심리학적인 설명에 왜 개입되는지에 관해 Fodor의 설명을 들어보자.

“신경생리학이나 물리학의 용어으로써 정식화될 수 없는 심리상태들에 대한 경험적 일반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우리는 기능주의로 나가게 되었다. ... 그러나 이제 그 일반화들이 어떤 것들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놀랄만한 사실은, 그 일반화로 간주될 모든 것들이 - 글자 그대로 모든 것들이 - 명제적 태도의 내용에 기반을 두고 명제적 태도에 적용되는 일반화라는 사실이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심리학이나 언어학의 교묘한 예를 들지 않아도 된다. ... 진지한 인지 심리학을 연구해 나가려는 우리의 시도는 어떤 류의 일반화가 체계적이고 엄밀해 질 수 있다는 희망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일반화는, 심리상태에 호소하지 않고서는 얻어질 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런 일반화는, 그 내용과 관련하여 심리상태에 적용되는 바로 그러한 일반화이기 때문이다.”<sup>8)</sup>

전형적인 인지론자들에 의하면 명제태도들은 그들의 내용에 의해 개별화되었으며 그 내용으로 인해 외적인 행위를 야기한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의한 심리상태의 유형화는 심리학적인 일반화를 가능케 한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 행위에 대한 심리학적인 설명에서는 내적인 상태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심리상태의 내용이 결정되는가?

7) Fodor (1980 b) p.253

8) Fodor (1981) pp. 25-6

RTM에 의하면 우리의 심리상태는 다음의 두 가지 기준에 의해 구분된다.

- i. 심적 표상(내용)
- ii. 심적 표상에 대한 태도(Attitude)

그러나, CTM에 의하면 우리의 심리상태는 다음의 조건에 의해 분류된다.

**Formality Condition:** 심리 작용은 형식적인(Formal) 것이다. 즉 심리 작용은 그것의 대상의 의미론적 측면이 아니라 형식적인 측면에 관여한다.

따라서, 심리상태는 그 형식적 속성에 의해 분류된다.

CTM과 RTM의 이런 두 가지 기준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F): 우리의 심리상태는 그 내용에 의해 분류되나, 내용의 의미론적 속성이 아니라 형식적 속성에 의해 분류된다.

이런 분류의 기준을 염두에 두고, 심리상태의 좁은 내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펴 보자.

첫째, 행위에 관한 심리학적 일반화를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심리상태를 불가투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어떤 심리상태에 '춘원은 이 광수이다.'라는 믿음을 부여하는 것은 그것에 '홍의 저자는 이 광수이다.'라는 믿음을 부여하는 것과 다르다. 홍의 저자가 이 광수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두 심리상태는 다른 것이 되고 만다. 만일 두 심리상태를 같은 것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심리상태를 투명하게 해석한 셈이 된다. 그러나 우리는 두 심리상태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불가투시적 형식을 받아들인다. 그 이유는 불가투시적 해석이 심리학적으로 우리 행위의 원인에 대한 더욱 타당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P라고 믿기 때문에 Q를 행한다. 그런데 이때 내가 믿는 바는 P이며 P와 외연적으로 동일한 그 어떤 것도 아니다. Oedipus가 '나는 Jocasta와 결혼하길 원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믿음은 그의 어떤 행위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그의 특정한 행동은 이런 믿음으로써 설명된다. 그러나, 그의 믿음을 '나는 나의 어머니와 결혼하길 원한다.'와 같은 식으로 투명하게 해석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의 행동에 대한 심리학적 설명을 얻어 낼 수 없다.

이런 불가투시적 해석은 인지론자들의 완전한 형식적 해석(Fully Formal Construal)과 입장을 같이 한다. 두 해석은 모두 주어진 심적 표상의 의미론적(또는 외연적) 속성과는 관련없이 심리상태를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지론자들의 특별히 심리상태들의 개별화 문제에 있어 형식적 해석의 입장을 취한 것은 심물 인과(Mental Causation)에 관련된 문제 때문이다. 그들의 직관은 다음과 같다.

- 어떤 사건의 원인을 찾기 위해 우리는 물리적 영역 바깥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 심물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 64 석봉래

- 이 두 사실은 심물 간의 수반(Supervenience)관계로 조화된다. 심물 인과는 이런 수반관계를 통해 가능하다.

어떤 믿음이 어떤 행위를 야기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에 수반되고 있는 어떤 물리적 속성에 호소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심리상태를 그 형식적 속성에 따라 유형화하는 이유이다. 형식적 속성이란 간단히 말하면 대상(심적 표상)에 있어 모양(Shape)과 같은 것인데, 이것은 주어진 대상의 물리적 속성이기도 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성립한다.

- 심리상태는 외적인 행위를 야기한다.
- 심리상태는 일정한 내용을 갖는다.
- 이 일정한 내용은 일정한 물리적(형식적) 속성을 갖는다.
- 이 일정한 물리적 속성은 일정한 물리적 행위를 야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관한 심리학적 설명에 있어 좁은 내용이 갖는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심리상태를 불가투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불가투시적 해석은 환경과 행위자 사이의 관계 보다는 행위자의 내면적인 표상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불가투시적 해석이 갖는 비의미론적(또는 형식적) 성격만이 행위의 인과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sup>9)</sup>

이러한 점에서 좁은 내용의 모습은 결국 어떤 행위를 행위자의 외부가 아니라 행위자의 내부에서 직접적으로 야기한 내적 상태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 B. 넓은 내용과 믿음의 고정

심리상태에 대한 불가투시적 해석을 받아들이는 일은 심리상태가 어떤 내용을 갖는다는 사실과 그 내용이 어떤 행위를 야기하게 된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어떤 행위의 원인을 어떤 믿음으로 돌릴 때, 우리는 그 믿음 상태를 불가투시적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심리상태의 좁은 내용이란 이런 불가투시적 해석에 의해 드러난, 즉 그런 해석에 의해 분류되고 구분된 심리상태가 갖는 내용이 된다. 직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주어진 행위자 자신이 생각하는 믿음의 내용이다. 도대체 믿음의 내용이 그런 것 말고 또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 자신이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우리 자신에 의해 내부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내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을 결정해 주는 것은 바로 내가 아닌가? 나 말고 누가 나를 더 잘 알 수 있는가?

이런 수사적인 질문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 내가 믿는 바를 결정해 주는 것은 나 자신의 내부적인 심리상태가 아니라는 것이 그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생각

9) 이 점을 Burge는 개체주의 (individualism)라고 부른다.

Burge (1986) p.4

"... 어떤 한 개인의 내적인 상태들의 의미나 내용은 그 개인의 내적인 신체 구조와 물리적인 조건들이 일정한 한 변화하지 않는다."

이다. 믿음의 내용은 좁은 방식으로가 아니라 넓은 방식으로 결정된다는 주장은 그들은 한다.

Putnam이 들고 있는 다음의 예를 살펴 보자.<sup>10</sup> 지구와 똑같은 쌍둥이 지구가 있다. 그곳에는 지구에 있는 모든 것과 그 물리적 속성에 있어서는 구분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즉 지구 상의 모든 것들의 완벽한 복제품이 그곳에 있는 것이다. 단지 예외가 있다면 지구의 물과 쌍둥이 지구의 물이 그 내적인 구조에 있어서 다르다는 점이다. 지구의 물은 H O 이고 쌍둥이 지구의 물은 XYZ 이다. 하지만 두 종류의 물은 그 현상적 특징에 있어서는 전혀 구별될 수 없다. (즉 쌍둥이 지구와 지구의 강과 바다와 호수를 채우고 있는 것은 모두 이것들이고 쌍둥이 지구와 지구의 사람들은 이것을 마시며 갈증을 푼다.) 이런 상황에서 쌍둥이 지구에 사는 쌍둥이 나 (나의 완벽한 복제품)가 지구를 방문하였다. 쌍둥이 나는 호수에 있는 물을 보고 '호수를 채우고 있는 것은 물이다'라고 생각했다. 이 때 나도 '호수를 채우고 있는 것은 물이다'라고 생각했다. 이 경우 두 사람은 같은 생각을 한 셈인가 다른 생각을 한 셈인가? Putnam에 의하면 두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물 (H O)에 대한 생각을 한 것이고 쌍둥이 나는 그의 물 (XYZ)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Putnam에 의하면 명제 태도들은 그 명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체계의 내부에서 그 내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체계가 놓여 있는 환경에 의해 그 내용이 결정된다.<sup>11</sup> 이런 주장은 자연주의 심리학의 입장을 상기 시킨다.

이와 유사한 내용의 예들을 우리는 여럿 발견할 수 있다.

예 1) 어떤 사람이 '오늘 날씨는 좋다'고 화요일 날 생각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수요일)도 '오늘 날씨는 좋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두 생각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예 2) 사과가 한쪽에 있다. 나는 '저 사과가 맛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과 바로 옆에 있는 감들은 '이 사과는 맛있다'고 생각한다. 이 두 사람의 믿음의 내용은 같은 것인가?

예 3)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후보 갑은 '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후보 을은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두 후보는 같은 같은 믿음의 상태에 있는가?

이런 예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점은 믿음의 내용은 그 관계적 속성에서만 파악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믿음의 내용은 믿음의 주체자가 놓여 있는 세계 또는 환경과 독립적으로 결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 C. 심리상태에 대한 외연적 해석과 행위 인과적 해석

위에서 제기된 심리상태의 좁은 내용에 대한 비판에 대해 Fodor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

10) Putnam (1975) p.223-7

11) Putnam (1981) p.19

"17 세기 이후 즐픈 우리와 함께 한 교실과는 달리, 의미는 도대체 머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다. 우선 과학은 모든 현상을 인과적 속성에 따라 분류하고 유형화한다. 심리학도 그 점에 있어서는 예외가 아니다. 행동의 원인을 그것을 받치고 있는 심리상태에서 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심리상태들을 그 인과적 속성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심리상태들을 그 인과적 속성에서가 아니라 환경과의 관계에 의존하여 구분하는 것은 행위 설명에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다. Putnam의 예에서 나와 쌍둥이 나는 물리적으로 환벽한 복제품들이므로 두 사람의 행위를 야기할 수 있는 내적인 물리적 메카니즘은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과의 관계에 의존하여 두 사람의 믿음의 내용을 다르게 부여하는 것은 행위에 관한 인과적 설명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앞의 예들에서 우리는 머리 속에 있는 온갖 종류의 표상들은 그 자체로서는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즉,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앞에서 나타난 우리의 행위에 관한 심리학적 설명이 갖추어야 하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우리의 심리상태가 인과적 힘을 갖는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심리상태들의 내용은 그런 외적인 행위의 차이를 드러낼 수 있도록 좁게 구분되어야 한다. 즉 심리상태의 내용은 외적인 환경과는 관계없이 심리상태를 누리고 있는 유기체의 내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이 두 입장 (넓은 내용과 좁은 내용의 두 입장)의 대립을 Fodor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한다.<sup>12)</sup>

\* 넓은 내용을 토대로 하는 심리상태의 분류 방식

1. 명제태도들을 관계적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내용을 유기체의 내부적인 입장에서 해석하지 않는다.
2. 나의 믿음과 나의 쌍둥이의 믿음을 구분한다. (Putnam의 예에서)
3. 두뇌의 상태는 비관계적으로 개별화된다.
4. 심신 수반 관계가 부정된다.

\* 좁은 내용을 토대로 하는 심리상태의 분류 방식

1. 명제태도들을 비관계적으로 개별화한다.
2. 나의 믿음과 나의 쌍둥이의 믿음을 동일시 한다.
3. 두뇌 상태는 비관계적으로 개별화된다.
4. 심신 수반 관계가 유지 된다.

결국, 여기서 드러난 대립은 심리상태에 대한 외연적 해석과 심물인과 (Mental Causation)의 대립이다.<sup>13)</sup> 이런 대립을 Fodor는 다음으로 해소하려 한다.

앞의 예들에서 처럼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그 자체로서는 외연이 결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정한 상황이 주어진다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일정한 외연을 결정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의 구도로 표현될 수 있다.<sup>14)</sup>

12) Fodor (1988) p.31-2

13) Fodor (1986) p. 5-6

"쌍둥이 지구의 문제는 문제거리이다. 그 문제는 외연적 동일성과 내포적 동일성의 연결관계를 깨트리기 때문이다."

좁은 내용(Narrow Content) + 맥락(Context) = 외연 (Extension)

진 리 조 건 (Truth Condition) = 외연 (Extension)

이런 구도에 의하면 심리상태의 좁은 내용은 근본적으로 완성된 내용을 갖는 어떤 것이 아니라 잠정적이고 가능한 어떤 것이다. 나와 쌍동이 나가 꼭같이 믿고 있는 그 무엇 즉 좁은 내용은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지구 또는 쌍동이 지구라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구체적인 내용을 지닌 것이 된다. 예 3)에서 처럼 두 후보자들의 머리 속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심리적인 사건의 내용은 좁은 의미에 있어서는 같은 것이나 주어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내용 (즉, 다른 넓은 내용)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 즉 좁은 내용은 의미론적으로는 하나의 잠재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좁은 내용을 언어적 표현을 통해 확정적으로 나타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Fodor의 주장을 살펴 보자.

1. “좁은 내용은 근본적으로 표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잠재적으로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떤 맥락에 안착(anchored)했을 때 --오직 그 때에만 의미를 가질 것이다.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쌍동이 나와 내가 공유하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 말할 수 없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의미론적인 내용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인 반면 쌍동이 나와 내가 공유하고 있는 생각은, 실질적으로, 의미론적 내용을 부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Psychosemantics p.50)

14) Fodor (1986) p. 5-6

“쌍동이 지구의 예는 의향과 외연의 연결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연결관계를 맥락에 의존적인 것으로 만들 뿐이다.”

Dennett (1987) p. 150

Dennett는 이러한 전략을 Kaplan 적 도식이라고 한다.

“핵심은 카플란적 도식이 매우 일반적인 것의 특수한 하나의 사례라는 것이다. 어떤 기능적인 체계를 우리가 기술한다고 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체계의 '본래적인 성격'과 그 체계가 놓인 환경이나 주변적 조건을 구분한다고 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카플란적 도식을 언제나 발견할 수 있다.

$$C + E = I$$

이 때 C 는 좁은 의미로 또는 체계 내부에만 적용할 수 있는 체계의 성격에 대한 개념을 말하며, E 는 체계가 작동하는 환경 또는 배경적 조건에 대한 개념이고, I 는 C 로 주어지는 체계의 성격에 대한 기술 보다 훨씬 풍부한 체계의 움직임에 대한 의미론적 또는 기능적 성격 규정을 주는 것이다.”

2. "... 심리상태의 내용을 기술하기 위해 문장의 내용을 사용하는 경우 ...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 원칙 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 어떤 맥락에 안착된 (anchored) 문장의 내용을 이용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문장들은 안착된 경우에만 내용을 가지기 때문이다." (Psychosemantics p. 50)

3. "내가 나의 쌍둥이 나와 ... 공유하고 있는 심리상태는, 맥락에 관하여서만 의미론적으로 어떤 내용을 부여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영어의 표현을 언급하는 것은, 가상적인 임론적인 속성을 통해 좁은 내용을 지적해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Psychosemantics p.51)

4. "어떤 의미에서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좁은 내용에 대한 무내용 이론(No Content Account)이다." (Psychosemantics p.53)

5.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주장으로 미루어 볼 때 좁은 내용은 본질적으로 맥락에서 진리 조건에로의 함수이다. 맥락에서 진리 조건에로의 각각이 다른 함수는 실질적으로 다른 좁은 내용이 된다." (Psychosemantics p.53)

이상에서 살펴 본 Fodor의 주장은 첫째로 좁은 내용은 완전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고 둘째로 좁은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 상 의미론적인 기준에 의해 개별화된다는 것이다 (좁은 내용은 맥락에서 진리 조건에로의 함수이다). 이런 주장은 언뜻 보기에 상변된 듯이 여겨 진다. 좁은 내용은 그 자체로서 의미론적인 내용을 부여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잠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때문이다. 도대체 좁은 내용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이러한 모순은, 그러나, Fodor의 전체적인 심리철학적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다. Fodor의 입장을 다음으로 정리해 보자.

가. 통속 심리학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설명과 예측에 있어 탁월하다.

나. 이런 통속 심리학의 입장에서 핵심적으로 고려 되어야 할 사항은 심물인과와 심리상태에 관한 불가루시적 해석이다.

\*심물 (또는 심신) 인과론: 우리의 행위는 내적인 심리상태에 의해 야기된다.

\*심리상태에 대한 불가루시적 해석: 행위를 야기하는 것은 믿음과 바람의 내용이다. 그런데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행위자가 내적으로 표상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이다.

다. 이러한 통속 심리학은 인지과학적 작업에 의해 엄밀화될 수 있다. 그 전략적 기반은 RTM과 CTM이다. 인지과학의 범위 내에서 통속 심리학의 직관이 살려지면서 우리의 행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심리상태의 모든 의미론적 속성은 각각에 해당되는 형식적 속성을 바탕으로 유형화되어야 한다. 또한 심리상태의 모든 의미론적 속성들은 형식적 속성들로 인하여 인과적 힘을 가지게 된다고 가정해야 한다.

라. 따라서 좁은 내용은 본질적으로 어떤 내용을 확정적으로 가지지는 않는 것이지만 그것이 외적인 행동의 원인이 되는 한 그것은 앞의 나. 에서 제시된 사

항들에 의해 어떤 내용을 가지는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Fodor는 좁은 내용에 대해서도 여전히 내용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이중적인 기준에 의해 Fodor의 심리철학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을 각각 언어철학적 고려와 심리철학적 고려라 이름 붙여 보자. 전자는 언어적 표현의 의미와 지시의 문제에 대한 고려이다. 반면 후자는 내적인 심리상태와 외적인 행위 간의 일반적인 관계에 대한 과학적 입장에서의 고려이다. 그래서 각각의 고려에서는 강조점도 다르다. 언어철학적 고려에서 가장 중요하게 거론 되는 것은 지향성의 문제이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든 관계가 중요하다. 기호와 그 지시대상 간의 관계 그리고 근본적으로 지시하는 것과 지시된 것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다. 반면 심리학적 고려에서는 심리상태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sup>15)</sup> 물리적 영역에서의 인과적 폐쇄성 (The Causal Closure of the Physical Domain: 어떤 사건의 원인을 찾기 위해 우리는 결코 무리계 바깥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원칙)이나 심신 수반론 (Mind Body Supervenience Theory: 마음의 변화는 몸의 변화에 의존적이라는 주장)같은 주장이 심리학적 고려에서 중요한 것이다.

자, 이제 심리상태에 관련하여 이 두 가지 고려가 서로 상충한다면 어떻게 될까? 만일 언어철학적 고려가 우리의 심리상태는 그 자체로서는 어떤 내용도 확정적으로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심리학적 고려는 우리의 행위는 일정한 심리상태의 내용에 의해 야기되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분명한 내용이 존재함을 상정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면 이 두 입장은 어떻게 조정될 것인가?

좁은 내용은 좁기 때문에 확정적인 의미론적인 내용을 얻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종의 잠재적인 내용을 가진다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 Fodor가 제시하는 증재언<sup>16)</sup>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좁은 내용이 여전히 내용일 수 있는 까닭을 이해 할 수 있다.

### III. 심리상태에 대한 인지론적 분류의 문제점

우리는 지금까지 Fodor가 시작한 길을 따라 심리상태의 좁은 내용에 대해 알아 보았다. Fodor는 심리상태의 분류에 있어 좁은 인과적 기준 (Narrow Causal Standard)과 의미론적 기준에 궁극적으로 일치하리라 예상한다. 심리상태의 내용 즉 심적 표상(명제)의 형식적 인과론적 속성과 그것의 의미론적인 속성이 서로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그는 가정하고 있다. 이 둘은 서로 별개의 속성이지만 우리의 행위 설명에 있어 하나의 조화적인 연결을 갖게 되리라고 Fodor는 가정한 것이다. 이 점은 바로 다음과 같은 통속 심리학적 설명

15) Fodor (1980) p.235

"존재론적으로 투명한 해석은 불가투시적 해석보다 강력하다. 예를 들어 전자는 존재 추리 (existential inference)를 가능하게 하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심리학적으로는 불가투시적 해석이 투명한 해석 보다 강력하다. 전자의 해석은 행위를 일으키는 마음의 인과력을 보다 잘 드러낸 준다."

의 확대이다.

(A는 p를 한다.)

왜 A는 p를 하는가?

A는 p를 믿고 q를 원하기 때문이다; A의 p를 믿고 q를 원함이 p를 함의 원인이다.

이러한 심리상태의 인과론적 속성과 의미론적 속성의 조화관계는 마음(생각)과 육체(행위)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표상의 물리적, 인과적 속성과 의미론적 속성의 예정조화적 상호작용을 통해 연결되고 있다는 인지론자들의 가정에 의해 지지 받는다. 심리상태들에 대한 인과적 분류 기준과 내용적 의미론적 분류 기준 사이에는 밀접한 상응 관계가 있다는 것이 현대 인지론의 기본 아이디어이다.<sup>16)</sup>

그러나 그 둘 사이에는 무시할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사실이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통 속의 뇌(Brains in a Vat)를 생각해 보자.<sup>17)</sup> 우리가 어떤 심리상태의 무든 인과적 성격과 그 심리상태가 다른 심리상태와 가질 모든 가능한 연결 관계를 다 안다고 해도 우리는 그 상태가 어떤 의미론적 성격(내용)을 가지게 될 지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호수는 물로 가득 차 있다'는 믿음에 해당되는 모든 내적인 조건을 통 속의 뇌는 갖출 수 있다. (뇌가 통 속에 놓여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모든 조건이 정상적인 뇌의 경우와 같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통 속의 뇌가 '호수는 물로 가득 차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는가? 물론 통 속의 뇌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간주할 수는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Fodor도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Fodor는 통 속의 뇌가 좁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좁은 것이든 넓은 것이든 어떤 내적인 상태에 어떤 내용을 부여하기 (어떤 내적 상태가 어떤 내용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내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체계의 물리적 환경, 역사적 배경, 언어적 관행, 인과적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어떤 믿음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체계가 놓여 있는 세계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이때 세계란 단순히 물리적 세계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님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좁은 내용을 통하여 심리상태의 인과론적 속성과 의미론적 속성 사이에서 상호 조화적인 관계를 확보하려는 Fodor의 전략은 인간의 내적인 상태와 외적인 행위에 대한 참된 이해의 문제에 있어 다만 하나의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통속 심리학적 직관과 그것을 인지과학적으로 엄밀화 시킬 수 있다는 희망 자체가 문제이다.

우선 통속 심리학적 직관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점을 의문에 붙여 볼 수 있다.<sup>18)</sup> 이

16) Fodor (1988) p.18

"한편으로는 심리 상태들 간의 인과적인 관계와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심리 상태들이 지니고 있는 명제적 내용들 사이에서 성립하는 의미론적인 관계 사이에는 놀라운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나는 위에서 주장했다."

17) Putnam (1981) pp.1-21

18) Churchland (1981) 그리고 Goldman (1986) pp.162-77

점에 대해서는 하나의 독립된 논의가 가능하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기로 한다. 다만 Stich의 주장대로 내용이란 요소가 심리학적 설명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를 지적하는 정도로 만족하자. 심리상태의 내용이란 요소는 행위 설명에 있어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는 것이 Stich의 지적이다. 그는 통속 이론에 기초하여 내용을 기반으로 믿음을 분류하면 특수한 경우에 있어 (우리와 믿음 체계가 매우 다른 원시 종족, 이방인, 어린 아이, 정신 병자들의 행위를 설명하는 경우에 있어서) 심리학적인 일반화를 결코 찾을 수 없게 되고 (그 이유는 그런 행위자들의 행위에 대해 적절한 믿음을 부여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발달 심리학, 비교 인지 심리학, 인지 임상 심리학의 길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한다.<sup>19</sup>

다음으로 통속 심리학적 직관이 과연 인지론적으로 엄밀화 될 수 있는지 물어 볼 수 있다. 이 점에 관해서 우리는 다소간 부정적인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다. 먼저 통속 심리학이 제공하는 심리상태의 개별화 원칙은 인지론의 그것과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 보자. 인지론의 원칙이 앞서 살펴 본 심리학적인 고려를 보다 강조한 것이라면 통속 심리학의 개별화 원칙은 오히려 언어철학적 고려를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갑들이는 두통을 느끼고 있다. 석순이도 두통을 느낀다. 나는 석순이가 두통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두통을 앓고 있다' 라고 말한다. 석순이는 반면에 갑들이가 두통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는 두통을 앓고 있다' 라고 역시 말했다.

이 때 두 사람은 같은 생각을 한 것인가 다른 생각을 한 것인가? 통속 심리학에 의하면 두 사람은 분명 다른 생각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인지론에 의하면 두 사람은 같은 생각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두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로 본다면 두 생각은 같고 같은 좁은 내용을 갖는 것이다.<sup>20</sup>

다음으로 통속 심리학은 (믿음의 내용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의미 전체론을 받아들이고 있다. 여기서 의미 전체론이란 믿음의 내용이란 그 믿음이 속해 있는 전체적인 믿음체계의 연결망에 의해 결정된다는 생각을 말한다. 이러한 전체론은 우리의 심리상태의 내용은 마음 속에서 그것 자체로 결정되는 것 아니라 그 심리상태가 속해 있는 전체적인

19) Stich (1983) pp.144-5

20) 이 점은 Fodor도 인정하나, 그는 양자가 양립(조화)될 수 있다고 본다. "명백히, 형식 조건(formality condition)을 준수하는 이론에서 얻은 동일한 심리상태라는 개념은 재구성되지 않은 직관이 불가부적 해석의 근거로 제시하는 동일한 심리상태라는 개념과 관련은 있으나 같은 개념은 아니다."

Fodor(1980) p.238, 그리고 "내용을 기준으로 삼는 구분은 형식 조건(formality condition)과 약간의 차이를 허용하지만 양립 가능하다는 사실은 현대 인지 이론의 근본적인 생각이다." Fodor (1980) p.240

체계 내에서 결정된다고 한다. 이 주장은 심리상태의 내용은 그것이 놓여 있는 환경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양립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마음의 내부에서 각각의 내용이 다른 내적인 내용들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므로써 Fodor에 대해 훨씬 강력한 도전이 된다. Fodor에 의하면 내적인 상태들의 내용은 그것이 야기하게 될 외적인 행위의 차이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지 내적인 상태들의 체계 내에서 해당 상태들이 차지하게 되는 위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것은 Stich가 든 예이다.)<sup>21)</sup>

김씨는 기억 상실중에 걸려 있다. 그는 정치에 매우 관심이 많았고 그 방면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암살 당했다는 사실에 몹시 충격을 받았다. 김씨가 70 노인이 다 되어 가고 있었을 때 그의 기억은 거의 사라져 갔다. 그가 죽기 며칠 전 다음과 같은 대화가 있었다.

나: 할아버지 박 대통령에 대해 말해 주세요.

김씨: 그래, 박 대통령은 암살 당했지.

나: 지금 박 대통령은 어디 있어요?

김씨: 모르겠는데.

나: 저, 박 대통령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말이에요.

김씨: 누구?

나: 박-대-통-령 말이에요.

김씨: 도대체 기억을 못하겠어.

나: 하지만 할아버지는 박대통령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잖아요.

김씨: 아, 그래 그는 암살 당했어.

이 때 우리는 김씨에게 어떤 믿음의 내용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인가? 김씨가 '박대통령은 암살당했어' 라고 말했을 때 그의 믿음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통속 심리학에 따르면(즉 상식적으로는) 우리는 어떤 적절한 내용도 그에게 부여할 수 없거나 부여하기 곤란할 것이다. (또는 김씨는 아마도 박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김씨가 적절한 지식을 말로 표현했는지라도 그의 전체적인 믿음의 체계로 미루어 보아, 그가 박 대통령에 관해 알고 있다고 하기는 힘들고 따라서 박 대통령에 관한 내적인 내용을 김씨에게 부여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라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상식적인 판단이다. 그러나 인지론에 의하면 분명히 어떤 외적인 발화 행위가 있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내적인 심리상태가 있을 것이고 따라서 그것에는 일정한 좁은 내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차이로 미루어 보아 인지론을 통해서도 우리의 내적인 상태의 내용이 올바르게 파악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Fodor는 이런 사례가 반드시 의미 전체론을 함의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즉 그는 이 예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김씨가 단순히 암살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

21) Stich (1983) pp.53-60 그리고 Fodor (1988) pp.61-2

다는 사실 뿐이지, 의미 전체론이 올바르다는 사실은 아니라고 한다), 통속 심리학 또는 동료 인간의 마음과 그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상식적인 이해는 인지론적인 작업에 의해 포착되기 어려운 면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 참 고 문 헌

- Bechtel, W. (1988) *Philosophy of Mind, An Overview of Cognitive Science*, Hillsdale, NJ: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Burge, T. (1986) "Individualism and Psychology" in the *Philosophical Review*, 45 pp. 3-45.
- Butterfield, J.(ed.) (1986) *Language, Mind and Logic*, Cambridge: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urchland, P. (1981)"Eliminative Materialism and the Propositional Attitude" in the *Journal of Philosophy* 78, pp.67-90.
- Churchland, P. (1988) *Matter and Consciousness* Cambridge: MIT Press.
- Cummins, R. (1983) *The Nature of Psychological Explanation*, Cambridge: MIT Press.
- Dennett, D. (1971) "Intentional System" in Haugeland (ed.) (1981).
- Dennett, D. (1987) *The Intentional Stance*, Cambridge: MIT Press.
- Dreske, F. (1981) *Knowledge and Flow of Information*, Cambridge:MIT Press.
- Flanagan,O. (1984) *The Science of the Mind*, Cambridge: MIT Press.
- Fodor, J. (1972) "Three Cheers for the Propositional Attitudes" in Fodor (1981)
- Fodor, J. (1980) "Methodological Solipcism considered as a Research Strategy in COgnitive Science" in Fodor (1981).
- Fodor, J.(1981 a) "The Mind-Body Problem" *The Scientific American*, Vol. 244, No.1, pp.124-32.
- Fodor, J.(1981 b) "Introduction, Something on the State of the Art", in Fodor (1981).
- Fodor, J. (1981) *Representation:Philosophical Essays on the Foundations of Cognitive Science*, Cambridge: MIT Press.
- Fodor, J. (1985) "Fodor's Guide to Mental Representation:The Intelligent Auntie's Vade-Mecum" in the *Mind*, Vol. 94, No.373, pp.76-100.
- Fodor, J. (1986) "Banish disCotent" in Butterfield (1986).
- Fodor, J. (1988) *Psychosemantics*, Cambridge: MIT Press.



- Goldman, A. (1986) *Epistemology and Cognition*,  
Cambridge:Harvard Univ.Press.
- Haugeland, J.(ed.) (1981) *Mind Design*, Cambridge: MIT Press.
- Putnam, H. (1975) "The Meaning of Meaning" in Putnam (1975 a)
- Putnam, H. (1975 a) *Mind, Language and Reality*,  
Cambridge:Cambridge Univ. Press.
- Putnam, H. (1981) *Reason, Truth and History*,  
Cambridge:Cambridge Univ. Press.
- Putnam, H. (1988) *Representation and Reality*,  
Cambridge:Cambridge Univ. Pres
- Stich, S. (1983) *From Folk Psychology to Cognitive Science: The Case  
Against Belief*, Cambridge: MIT Press.